藻類 Jpn. J. Phycol. (Sôrui) 44 : 169, November 10, 1996

吉田忠生：韓国藻類学会10周年

ISSN 1016-2607

ALGAE

The Korean Phycological Society

Volume 11 Number 1 March 1996

THE NEWS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PHYCOLOGY

藻類學會報

발행처 : 한국조류학회
발행인 : 이인규
주 소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VOLUME 7 NUMBER 1 AUGUST, 1996

한국조류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조류학회 회장 류 근 로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한국조류학회가 8월 19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학회는 참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1986년 한국 해조분류학의 개척자인 裴相勳 교수가 회갑을 맞아 그 기념논문집의 출판을 계획을 겸고 이듬 준비하던 중 생생남은 나에게 그것을 출판할 마땅한 곳이 없으니 차제에 우리도 조류학회를 설립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문의해 왔다. 나는 이 일을 정 은 교수와 의논하고 이어서 당시 학계 원로였던 정병호 교수에도 상의하였더니 좋은 것이라고 동의해 주었다. 그리하여 8월 19일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열기로 하고 정 은 교수와 내가 발기 준비위원이 되어 창립 총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그렇게 오셔지셨다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 우리는 당연자상하였지만 그러나 예정대로 창립총회를 치르고, 비록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강계원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여 한국조류학회의 고고한 성을 올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0년간을 초대 강계원 회장에 이어서 제 2대 정 은 회장, 제 3대 고남표 회장, 제 4대 김준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땀으로 노력에 힘입어 본 학회는 세계적인 이러움과 부러운 인력을 극복하여 오늘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전임 회장들과 이 회를 이끌어 온 역대 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강재원 회장은 그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부산에서 개최된 제 2회 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때에는 분주한 몸을 이끌고 직접 회장에 나와 눈물로 우리 학회의 발전을 격려하였지만 끝내 한 번 참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타계하였으니 참으로 유감스럽기 앞을 수 없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제 한국조류학회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하여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대평양 조류학회'의 제 1회 연구발표회에는 한국 조류학자들이 거의 1/3에 육박하는 많은 인원으로 참가하여 아시아 태평양권의 조류학을 이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을 보여주었다. 자라나는 젊은 학자들이 그러는 나라보다 수적으로 많고 원기 왕성하게 좋은 연구를 하고 있음이 주명되었기 때문이다. 학문에는 비록 국경이 없지만 학자들에게는 조국이 있기 때문에 빛어나는 우리의 국력이 상승하는 학문적인 역량을 길러 국제 사회에서 우리 연구 성과들이 소개 받을 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학회지가 좀 더 충실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학문연합은 논문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상히 연구하여 보다 알찬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 학회지의 위상을 드높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들이 가슴인 노력 덕분에 우리 학회지가 국제 사회에 많이 알려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실려 후학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끝맺기 우리 학회의 성장을 위하여 기원하고 싶은 것은 10년 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오는 업적과 단결의 이 참다운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회원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이 학회를 사랑하며 아끼고 키워 가는 시금치 지팡스러운 풍토를 길러 말자는 다짐이다. 학문 이전에 인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경성적 미방보다 인동적 조화로써 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류학의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분야들이 고루 발전할 때 비로소 국가적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입장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조류학의 보다 취약한 분야들에서 더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될

韓国藻類学会は1986年に創設され，今年で10周年を迎えた。この機会に創立10周年記念の国際シンポジウムと定期学術発表会が8月19-20日に100名以上の会員の参加の下にソウル大学博物館で開催された。8月19日午後は開会式のあと，国際シンポジウムとして韓国だけでなく，近隣の日本・中国・台湾における藻類学の現状について，日本からは吉田，中国からは費修梗氏FEI, X. G.，台湾からは江永綿氏CHIANG, Young-Mengが招かれて講演を行った。その後，微細藻，大形藻，養殖，赤潮の各部門について韓国での研究現況が紹介された。20日には学術発表会として21題の講演とポスター発表が行われた。

日本と韓国・台湾は歴史的にみても纏まっていて，19世紀のヨーロッパの学者による新種の記載の後，20世紀になって岡村金太郎の仕事が中心となって海藻相の調査が進行し，戦後になってそれぞれ別の道を歩み始めたことがよくわかる。中国では1940年代から独自の研究が始まった。海藻については曽呈圭TSENG, C. K.，淡水藻では饒欽止JAO, Chin-Chihの活躍があり，以後発展してきたことが示された。海藻の養殖については青島の海洋研究所が中心となって海苔・昆布養殖が普及している。

韓国藻類学会は1986年に姜悌源氏KANG, Jae Wonを会長として発足し，現在では会員数約300名（うち外国会員61名）となり，李仁圭氏LEE, In Kyuが会長を務めている。機関誌として藻類学会誌Korean Journal of Phycologyが発行されていた。1996年からは英文誌Algaeと藻類学会報News- 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Phycology（韓国語）の二本立てとなり，Algaeの11巻1号は会長李仁圭氏の還暦記念号となって，19編の論文が掲載されている。

（〒060 札幌市北区北10条西8丁目　北海道大学理学研究科）